

# 一 般 管 理 及 家 庭 管 理

Management and Home Management.

金  
Lag

樂  
Shin

信  
Kim

## 1. 管理의 意義

英語로 manage 를 名詞化한 management 가 管理, 或은 經營을 意味하는 말이며 이 탈리아의 maneggiare 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한다.

그 뜻은 馬術敎習所에서 말을 訓練한다는 意味이며 말이 사람의 命命에 따라 영리하게 움직이게 하는 綜合訓練을 말한다. 또 여기서 派生되어 指揮命令한다. 또는 處理한다는 뜻이 되어 佛語의 menager 의 “신중하게 다룬다” “절약한다” “지도한다” 등의 뜻과도 통한다.

이러한 데서 볼때 우리말 사전에 있는대로 “사무를 정리한다” “아랫 사람을 指揮 監督한다”로 解釋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어느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協同의 努力을 얻도록 合理的으로 일을 보살피는 原理에 立脚하여 部下의 指揮, 監督, 事務整理, 物件處理 등을 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좀더 敷衍하면 管理는 어떤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合理的으로 計劃하고 組織하여 이를 施行하면서 모든 것이 잘 運營되도록 指揮 監督 統率하는 活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어떤 技術의인 事務處理가 어떻게 能率의이고 經濟的으로 遂行되도록 하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2. 管理學의 起源 및 學說

人間은 生活經驗을 통하여 周圍環境을 改善하고 일의 處理도 改良하면서 文化를 發達시켜 왔는데 이것은 目的達成을 위하여 일을 合理的으로 하여 나은 成果를 얻으려는 管理의 過程인 것이나 이 管理에 對한 學問으로서 體系화된 것은 없었다.

近代的인 科學的 管理가 唱導되고 管理學이 새로 생긴 것은 18世紀부터 19世紀에 걸친 産業革命의 結果 모든 事業은 能率과 經濟를 모토로 經營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생기게 된 것이다.

즉 家內工業이란 小規模의 方式으로 부터 大規模의 工場制로 옮겨가서 機械化되고 分業化되어 大量生産을 하게 되었고 그러기 위하여는 人員 建物 施設 物資들이 生産目的에 合當하게 잘 運營되어야 하며 만든 商品의 販路가 넓어서 많은 利潤이 있어야 하였

던 것이다. 生産振興과 利潤의 增進은 企業의 合理化로 되도록 '生産原價를 減少하여 많은 競爭에 이겨야 하였으며 그러기 위하여는 能率의 向上을 期하여야하였고 能率의 向上은 管理의 合理化, 管理의 科學化에 있음으로 이 問題가 많이 研究되게 되었다.

### 3. 管理의 學說

管理의 科學化를 위하여 여러 學者들이 研究를 하였으나 그 中에서 美國의 테일러 (Frederik Winslow Taylor 1856~1915)는 科學的 管理法의 創始者로서 有名하며 産業의 機械化, 分業化는 科學的 管理法를 主唱하는 Taylor system 에 依하여 發展進步되어 많은 效果를 거두었던 것이다.

이 方法이 極端으로 發展되면 人間도 마치 機械와 同一視되고 人間의 感情이든가 意慾은 無視當하기 쉬우며 그 結果能率의 低下를 招來하게 되기 쉽다.

그런데서 人間關係를 主로 한 페이올의(Henri Fayol 1841~1925)의 실증적 관리법(實證的 管理法)이 提唱된 것으로 생각된다.

페이올은 테일러가 사람을 機械에 예속시켜 生覺한데 反하여 사람을 주동으로 하고 機械를 사람에게 예속시켜 생각하였다. 卽 지나친 分業化, 機械化에서 오는 無意慾과 꼭두각사에서 벗어나 人間의 本性에 立脚한 創意라든가 經營에도 關與하게 하는 등 人間關係를 考慮하였다. 人間關係란 人間對 人間の 좁은 關係뿐이 아니고 人間다운 與件 全部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페이올은 먼저 管理의 概念을 明確히 하여 다음 여섯가지로의 概念으로 나누었다.

- (1) 기술직능……生産, 製作, 變形
- (2) 영업직능……購買, 販賣, 交換
- (3) 재무직능……資本의 調達과 運用
- (4) 보호직능……財産과 從業員의 保護
- (5) 회계직능……財産目錄, 貸借對照表, 原價計算
- (6) 관리직능……計劃組織, 命令, 協助, 統制

以上으로 나누고 管理직능이 計劃, 組織, 命令, 協助, 統制의 機能을 가지고 있다하여 이것을 管理의 機能的活動의 5要素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管理學을 研究한 많은 사람이 있으나 代表的 二說만을 略述하고 管理의 性質을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 4. 管理의 性質

#### (1) 管理의 本質

##### 1) 管理의 普遍性

管理은 人間의 目的活動에 있어서 그 하고자 하는 바를 能率의으로 效果있게 處理하기 위한 技術方法이며 이것은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原理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活動하는 모든 分野에서 이러한 原理 및 標準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은 能率있는 活動을 위하여 이것을 模索하며 追求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管理은 모든 分野에 普遍的으로 存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複數 集團生活 活動에 있어서는 個人活動인 境遇에 比하여 管理의 要素가 質로 量으로 많을 것은 勿論이다.

今番 家庭科 안에 一般管理가 添加된 것은 家庭生活이 廣範圍하고 多樣的인 것과 家庭科의 實科的인 面에 비취 반드시 一般管理의 履修를 必要로 하기 때문인 것이며 또 管理의 本質인 普遍性에서 오는 結果이기도 한 것이다.

## 2) 管理의 組織性

管理은 어떤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方法이다. 이 手段 方法은 일의 完遂에 總集中되는 것이며 要素들이 서로 協助, 同調하여야 한다. 즉 人員, 物資, 施設, 金錢들의 要素가 目標達成에 각각 最大의 効力を 發揮하도록 計劃되며 組織되어 한 目的에 統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반드시 組織이 必要하며 管理은 機械中心으로부터 組織中心으로 移動한 것을 말한다.

## 3) 專門性 標準性

合理的인 管理의 第一原則은 分業制에 있는데 이것은 일을 管理하는데 가장 能率있는 方法이다. 즉 各各 專門性을 띤 技術과 技能을 提供하면 自然 일을 迅速히 하면 서도 效果를 올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는 方法에 있어서 浪費없는 勞力, 時間, 物資의 標準을 規定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合理的 管理에 따르는 것은 專門性和 標準性인 것이다.

## (2) 管理의 機能

다음 管理의 機能을 考察하면 管理은 技術的인 行爲이며 裁量的 行爲이며 責任的 行爲인 것이다.

### 1) 技術로서의 管理

管理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하여 行하여지는 合理的인 여러가지 手段을 有機的으로 活用하는 것이다. 즉 手段의 體系化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計劃이나 組織이나 統制나 모든 것이 手段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手段은 目的達成의 方案이며 同時에 技術인 것을 意味한다. 여기서 技術이라 하는것은 어떤 特殊한 專門的인 技術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管理의 手段으로서 必要한 計劃을 세우는 일, 組織하는 일, 統制하는 일 등이 모두 技術이며 이러한 技術의 一連의 體系화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合理的으로 잘 組織될 管理體制에서는 그 組織自體가 技術임으로 特別한 有能한 運營者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 現代는 組織時代라 하는 것도 組織의 이러한 技術성을 말하는 것이어서

管理는 組織이요 技術인 것이다.

### 2) 裁量의 管理

管理는 合理性을 띠고 어떠한 組織과 틀에 박혀 規則的으로 움직인다는 印象을 주며 또 그렇게 體系세워 組織되어 있다. 그러나 때로는 例外가 있으며 管理者의 判斷과 裁量으로 解決하여야 될 問題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境遇 管理者는 주어진 權限의 限度內에서 自由로운 行動을 取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勿論 미리 計劃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合理的 手段의 一部인 것이며 法코 脫線이나 個人利得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裁量의 權限을 最大限 效果있게 善用하면 管理者의 創意와 意慾이 旺盛하여 지며 熱意를 가지고 效果있게 目標을 達成하려고 積極的으로 努力하기 때문에 管理者의 裁量의 行爲는 有效한 점이 많다.

### 3) 責任의 行爲

管理에 있어서 裁量의 行爲만 認定하고 거기 對한 責任이 없으면 放縱하기 쉽다. 權利에는 義務가 따르며 自由에는 自律과 責任이 따르는 법이다. 그러므로 管理者의 裁量의 行爲의 結果는 그 合理性 如何가 判定되며 評價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管理의 機能은 技術, 裁量, 責任의 行爲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管理에 있어서 能力이란 技術 또는 理論으로서 管理하는 “힘”을 말하고 “自由”란 자기 裁量을 發揮하여 責任지고 管理하는 “範圍의 限度”를 말하며 “責任”이란 民主的인 妥當性을 띄운 “任務”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 (3) 管理의 側面

管理는 目的이 아니고 手段이라고 하였지만 管理自體의 우선의 目標은 일을 遂行함에 있어 經濟面에서 볼 때 最少의 勞力과 經費와 時間으로 最大의 成果를 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境遇에도 該當하는 管理의 原則이며 目標인 것이다.

이 目標達成을 爲하여 管理要素(手段)인 人員, 物資, 施設, 金錢, 市場 등과 勞動力을 어떻게 技術的으로 連結시켜서 目的 遂行에 가장 適合한 合理的인 秩序關係를 맺게 하느냐는 技術的인 構造가 必要하다. 똑같은 條件으로 같은 일을 始作하여 興하고 亡하는 것이 純全히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管理의 目標達成에 必要한 또 한가지가 人間關係이다. 人間이 하는 專門技術과 勞動力을 管理의 다른 要素들과 같이 取扱하면 아무리 技術構造와 組織이 잘 짜여져 있어도 成功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機械가 發達되고 自動化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하는 사람 相互間에 또 管理者와 從業員間에 圓滿한 人間關係가 이루어져서 強要가 아니고 自發的으로 意慾的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科學的 合理性을 지나치게 強調하면 人間은 機械의 奴隸가 되므로 人間이 機械를 驅使한다는 立場에서 人間을 重視하며 人間相互關係에 重點을 두자는 것이다.

(4) 管理者

最高 管理層으로부터 一線監督者에 이르기까지 部下從業員을 引率하고 있을 境遇에 그 管理者는 管理上의 指導者인 것이다. 아무리 組織과 施設이 잘 되고 各要素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옳은 管理者가 없이는 일을 能率的으로 圓滿히 進行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管理者는 部下를 指導監督하고 上部의 意事를 下達하며 下部의 失態 上部에 反映시켜서 自己所管의 일이 한 協力體로써 能率과 人和가 잘 이루어지도록 이끄는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管理者로써 갖추어야 할 많은 條件이 있는 것이다.

(5) 一般管理과 家庭管理

以上 一般管理에 對하여 大體 考察하였다. 管理의 性質과 理論은 普遍性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배운 것을 家庭管理에도 該當시킬 수 있는 것이다. 家庭에서의 管理者는 主婦이며 家事를 遂行하기 爲하여 目標과 計劃을 세우고 家族을 適材 適所에 配置하여 任務를 分擔시키며 最小의 勞力과 時間과 經費로 家庭生活을 해나가게 指導監督하는 것이라든지 率先垂範하여 장려를 하는 것 圓滿한 家族關係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등이 모두 管理인 것이다.

一般管理는 企業體, 官公署의 일들을 주로 한 管理理論이지만 이것을 잘 消化하면 家庭管理는 勿論 小企業의 營運에도 또 큰 機關에서의 執務에도 모두 도움이 되는 것이다. 管理의 普遍性에서 論한바와 같이 人間生活있는 데는 모두 管理가 다르므로 더욱이 女性의 社會進出이 현저하여진 現代에서는 女性도 管理學을 통해 社會를 바로알며 또 家庭運營에도 應用하여야 할 것이다.

祝

발

전

大韓家庭學會

亞細亞興業株式會社 副社長  
韓 日 社 代表  
宗鈴子手工藝研究所 代表

宗 鈴 子

서울特別市 中區 明洞 2街 31의17

電 話 ⑧ 2 7 8 9 番

釜山 ②6388番 · 大邱 ②4281番 · 裡里 584番 · 全州 2025番 · 金提 202番

自宅電話 ⑤ 7 6 6 4 番